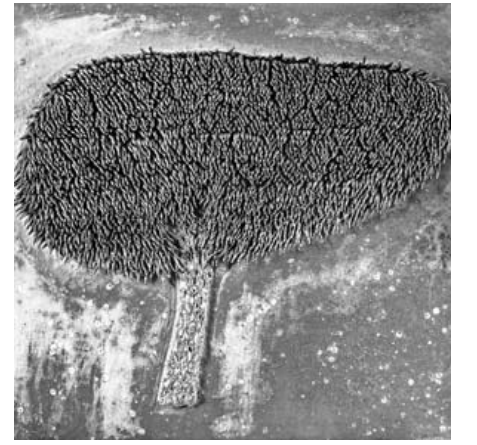


김홍빈 작가가 '깨지지 않는(Unbreakable)'을 주제로 유리의 물성을 통해 5·18민주항쟁의 기억과 최근 탄핵 집회의 경험을 다룬 개인전을 연다. 사진은 왼쪽부터 '도청앞 분수대를 위한 상들리에', '모임', '5월16일 분수대광장' (사진 나경택).



'dry tears'

흙으로 빛은 기억과 그리움

한갑수개인전...18일까지 인사아트센터

오랜 시간 흙 작업을 이어온 한갑수 작가가 기억과 그리움의 풍경을 담은 개인전 '#윤희에게'를 오는 1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이어온 '고슴도치' 연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평면 작업으로 확장한 신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작업 중인 무안의 흙에 고향 신안의 빨을 섞어 만든 '흙 가시'를 화면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오래된 기억과 이루지 못한 꿈, 사랑의 흔적을 투영했다.

전시장에는 흙 가시로 이뤄진 '기억나무'를 중심으로 기우는 달과 홀로 나는 새 등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작가는 최소환의 서사만 남긴 채 화면 안에 쌓인 가시들의 말에 집중한다. 반복적으로 흙 가시를 말아 세우는 과정은 결국 그리움을 불러내는 수행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작가에게 '기억나무'는 먼 곳을 바라보던 자신의 뒷모습에서 출발한 자화상이다. 오래된 기억은 끊임없이 편집되고 충돌하며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다시 하나의 풍경으로 화면 위에 놓인다.

전시 제목인 '#윤희에게'는 서신의 형식을 띤다. 자신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로 작품이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관객 역시 작품 앞에서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덧대며 저마다의 '윤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 이후 '#인디언쌈뽕', '#기억아리', '#December', '#기억나무집', '#Dry Tears' 등 '기억나무' 연작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목 앞에 붙은 '#'은 기억의 가지들이 하나씩 더해져 결국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최명진기자

깨진 유리로 이어낸 기억의 총위

김홍빈 개인전 '깨지지 않는'...3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5·18 기억과 탄핵 집회 경험 교차

유리 물성 통해 연대·지속성 시각화

'깨진 유리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연결하다.'

서울과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홍빈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양림동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깨지지 않는(Unbreakable)'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독일 Art5예술협회 소속 유재현이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유리의 물성을 중심으로 5·18민주항쟁의 기억과 최근 탄핵 집회의 경험을 함

께 다룬다.

작가는 깨진 유리를 다시 녹여 이어붙이는 '재소성'의 과정을 통해 부서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기억과 정신을 시각화한다.

전시의 중심에는 설치작업 '도청앞 분수대를 위한 상들리에'가 놓인다. 이 작품은 금남로 분수대의 형태를 바탕으로, 위로 솟구치던 분수를 거꾸로 뒤집어 하늘에서 빛과 물줄기가 쏟아지는 상들리에 형태로 재구성했다.

상부 프레임에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모였던 군중의 모습이 담긴 유리 장식이 매달려 있고, 맞은편에는 은박담요를 두른 시민 형상이 배치돼 서로 다른 시간대의

연대를 드러낸다.

작가는 앞서 2023년과 2025년 5·18기념문화센터 전시 '소리 없는 목소리'에서 선보였던 블루스크린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유리로 확장했다. 당시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작업을 유리는 매체로 바꾸며, 이미지와 기억의 전달 방식을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작업의 출발점으로는 사진가 나경택이 촬영한 1980년 5월16일 분수대 광장의 군중 사진을 언급한다. 서로 다른 표정과 모습으로 모여 있던 사람들의 장면에서 출발한 인상은 이후 작업 전반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군중 속 개별 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로 존재한다고 보며, 그 장면 안에 자신 또 한 함께 놓여 있는 감각을 작업으로 풀어냈다. 전시 기획을 맡은 유재현 기획자는 "깨지지

않는'이라는 제목은 쉽게 깨지는 유리의 성질에서 가져온 역설'이라며 "우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부서진 이후에도 다시 이어지며 남아 있는 정신을 의미한다. 기억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채 반복되며, 과거와 현재를 겹쳐 놓는다"고 설명했다.

김홍빈 작가 역시 "깨진 유리가 전기가마의 열을 거쳐 다시 붙는 과정에 주목했다"며 "이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가 고통을 겪으며 이어져 온 흐름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군중 속에는 중심도 주변도 없고, 각자가 온전한 주체로 존재한다는 점을 작업에 담고자 했다"며 "항쟁의 기억은 시공간을 넘어 현재로 이어지며, 다시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서로를 연결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진기자

ACC, 5월18일 임시 운영

옛 전남도청 개관 맞아 관람객 편의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을 맞아 ACC 정기 휴관일인 오는 18일 임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ACC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일에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과 외지 방문객들이 ACC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임시 운영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ACC가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남도 문학 하나로... '전남광주통합문인협회' 창립 합의

광주·전남문인협회 회장단 공동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역사적 통합을 앞두고 양 지역 문인단체가 문학 분야 통합 추진에 뜻을 모았다.

(사한국문인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박덕은)와 (사한국문인협회 전라남도지회(회장 임일환) 회장단은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가칭 '전남광주통합문인협회' 창립을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며, 7월1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 협회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광주정신, 남도의 문화적 자산을 하나로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학은 지역의 정신과 정체성을 기록하는 가장 오래가는 문화의 언어"라며 "행정과 경제의 통합에 걸맞게 문학 역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도 문학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 문학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통합은 두 단체의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남도 문학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위대한 출발"이라며 "광주와 전남 문인들이 뜻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문학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문단에서는 이번 합의가 광주·전남 통합의 상징성을 문화적으로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